

한국학호남진흥원 개원 8년 ‘수집 자료 10만점’ 돌파

기대승·퇴계이항 친필 편지 등 10만1600여점

전국 국학진흥기관 중 두 번째···보물 등재 추진

1434년 김수연(1419~1455) 장군에 발급된 무과 합격증서 ‘김수연 왕지’는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문서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이 고신의 품계와 관직을 직접 하사했는데 이때 왕지(王旨)가 발급됐다. 조선 초에는 왕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세종 17년(1435) 이후부터 교지(敎旨)로 바뀌었다. ‘김수연 왕지’는 교지로 바뀌기 전 발급된 왕지이기에 가치가 높다. ‘양생생문답첩’은 고봉 기대승(1527~1572)과 퇴계 이항(1501~1570)의 왕복 편지 및 한시를 수록한 것으로, 고봉의 진필을 확인할 수 있는 희귀본이다. 신분과 나이를 초월해 두 인물이 나눈 철학적 사유와 우정을 엿볼 수 있다. 이 귀중한 자료들은 나주 김해김씨 시중공파, 광주 남구 월산동 기대승 종가가 각각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탁해 세상에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호남을 거점으로 한국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연구와 콘텐츠 생산을 활성화 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학호남진흥원이 개원 8년 만에 자료 10만점을 수집했다. 국내 국학진흥기관 중 유일하게 독립청사와 전문 수장고 시설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뤄낸 성과여서 의미가 크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은 4일 한국학 자료 수집 10만점 달성을 알리는 간담회를 갖고 개원 8년 만에 전국 국학진흥기관 가운데 두번째 규모의 소장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누적 수집 자료는 올해 멸실·훼손 위기에 놓인 한국학 자료 1만4455점을 추가 확보해 10만1696점(11월30일 기준)이다.

전국 국학진흥기관 소장 규모를 보면 한국국학진흥원 68만여점, 한국학호남진흥원 10만1600여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4만9000여점, 울곡국학진흥원 2만9000여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비교적 짧은 기간 한국학 원본 자료를 대규모로 확보해 호남지역 인문, 사회, 역사, 예술 등 여러 분야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확보한 자료는 호남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량 포함됐다. 1434년 발급된 무과 합격증서인 ‘김수연 왕지’,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항의 왕복 편지 및 한시를 모은 ‘양생생문답첩’, 1600년 경 수은 강항이 기록한 포로 일기 ‘간양록’ 등이다. 불교 자료로는 1389년 무학대사가 간행한 불경사전인 ‘장승법수’와 1452년 간행돼 현재까지 같은 판본이 발견되지 않은 유일본인 ‘불경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등이 있다.

호남의 생활문화와 학문 풍토를 조망할 수 있는 자료 역시 풍성하다. 1756년 나주 풍산홍씨 문중 홍수원의 아내 진원오씨와 며느리 진주정씨가 작성한 한글 조리서 ‘음식보’는 전라도식 식재료와 조리법을 가장 오래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호남의



채용신 작 ‘기우만 초상화’

병장 박광전이 스승인 퇴계 이항으로부터 직접 받은 ‘주자서절요’, 호남 실학자 존재 위백규가 제작한 ‘환영지 묵판’은 독도가 표기된 천하도를 수록, 당시 정조에 진상됐던 자료로 남아 있는 묵판과 초안은 희귀본이다.

이와 함께 한국학호남진흥원이 보유한 문화유산은 현재까지 전남도유형문화유산 1676점, 광주시 유형문화유산 18점, 전남도문화유산자료 265점, 향토문화유산 132점 등 총 2091점이다. 진흥원은 이들 자료와 신규 자료에 국가유산 자료가 다수 포함돼 향후 학술집담회를 열어 객관적 자료 평가를 거친 뒤 순차적으로 보물로 등재할 계획이다.



강세항 작 ‘노매도’



‘음식보’

진흥원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호남 한국학 연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인문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지역 기반 인문학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홍영기 원장은 “진흥원은 호남지역 한국학 자료

를 수집, 연구, 활용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중추 기관”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기록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독립 청사와 전문 수장고 확보로 호남지역 한국학 연구의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장은 이어 “DB구축과 PDF 파일 등을 누리집에 탑재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AI를 활용에 시도면이 쉽게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활용을 모색 중이다”면서 “보성 죽곡정사에 소장된 강세항의 ‘노매도’와 석지 채용신이 한말 호남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기우만을 그린 ‘기우만 초상화’처럼 고문헌뿐만 아니라 예향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시서화 등 수집, 아파트 문화로 인해 멸실 위기에 놓인 근현대 사진 자료 수집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삶의 고통과 연소···눈물로 이뤄낸 정화

고성만 시인의 두 번째 시집 ‘마늘’이 다인출시선 7번째권으로 최근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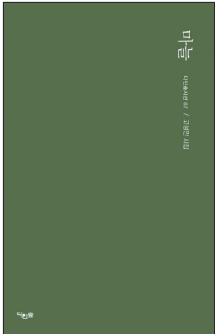
이 작품집은 유년기의 향토적 추억에서 출발해 장년의 자아 성찰에 이르기까지, 한 인간의 내적 성장기를 그려낸 서사적 시집으로, 단순한 시인의 개인적 회고를 넘어, 독자에게 ‘내면을 향한 긴 여정’을 환기한다.

성장기의 순수한 동경, 현실의 굴욕과 좌절, 그리고 끝내 도달하는 정화와 성찰까지, 이 시집은 우리 모두가 거쳐온 삶의 길목을 낭만적으로 비추며, 시조가 품을 수 있는 내면적 깊이를 새롭게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그의 이번 시조집에는 ‘상실’과 ‘그리움’이 넓게 드러워져 있다. 어린 시절 ‘은사시 숲속에서 첫 입술을 주면 애인’이나 ‘소중한 구슬 딱지를 건네주면 친구’는 단순한 기억을 넘어, 시작 자아가 여성성과 처음 맞닥뜨린 무의식적 원형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세계는 현실 속에서 쉽게 파편화 되고, 끝내 회복되지 못하는 잃어버린 에덴으로 남는다.

시 속에서 반복 등장하는 ‘누님’, ‘누이’, ‘새댁’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시인의 내면에 형성된 아니마(Anima, 내적 여성성)의 다양한 얼굴로 해석된다. 이 여성상들은 보호자이면서도 동시에 동

고성만 두 번째 시집 ‘마늘’ 출간
시인의 내면에 형성된 형상들 조망



경의 대상이고, 때로는 상실과 좌절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시인은 사랑과 성장이 언제나 아이러니와 역설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표제작 ‘마늘’은 이 여정의 정점에 있다. ‘불판 위에 올려진 이백여 빠따다’라는 이미지 속에는 삶의 고통과 연소, 그리고 눈물로 이뤄낸 정화가 담겨 있다. 마늘은 결국 향토성과 생명력, 슬픔과 치유를 동시에 상징하는 메타포가 된다.

마늘이 시인에게 삶의 고통과 연소의 상징이었다면 ‘보리’는 낯선 단어이지만 외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면이나 본질로서의 삶에 대한 시적 형상

화다.

시인은 귀가 순해진다는 나이대를 살아내고 있어 충분한 시적 사유로 보리같은 시적 결기를 구축할 수 있었을 터다. 여기서 말하는 보리는 밤이나 도토리도 속껍질을 말한다. 관찰과 감성의 농밀한 밀도를 느낄 수 있다.

시인은 “다람쥐가 숨겨놓은/알밤에서 돌은 씹//비바람 눈보라/툭, 뿔군/열매 하나//억지로 껍질 벗기면/칼날을 무는 마음”이라고 노래한다. 껍질과 칼날의 비유가 예사롭지 않은 깊이를 더한다.

이 시조집은 ‘월봉서원 앞 감나무’를 비롯해 ‘검은 꽃의 감정’, ‘보리’, ‘눈물주의보’ 등 제4부로 구성됐으며, 일상 틈틈이 창작한 70여편의 시조가 실렸다.

염창권 시인은 표사를 통해 “시적 자아가 유년기부터 장년기까지 아니마를 통해 자기 내면을 탐색하고 재구성해가는 드라마다. 여성상은 단순한 회상의 대상이 아니라 자아 내부에서 형성되고 소멸했다가 다시 귀환하는 심리적 실체로 나타난다. 비로소 자아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조, 성장기 소년의 감수성을 잃지 않고 간직해온 나이 든 소년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근래의 시조단이 거둔 큰 수확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한 해 동안 같고 닮은 전통 기·예능 펼친다

‘전통문화예술강좌 수료식’

내일 오후 2시 전통문화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6일 오후 2시 전통문화관에서 광주시 무형유산 보유자와 수강생이 함께하는 ‘2025 전통문화예술강좌 수료식 및 결과 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상·하반기 총 26개 강좌에서 강좌별 15회차 중 70% 이상 출석한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무형유산 기·예능 보유자 및 전문강사에게 직접 배운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료식은 상·하반기 수강생 수료증 전달식에 이어 1부 기능분야(민화·민화·전통음식) 발표회, 2부 예능분야(판소리·판소리교본·가야금병창) 발표회 등 순으로 진행된다.

2025년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은 총 269명이다. 상반기 강좌에서는 수강생 140명 중 122명, 하반기 강좌에서는 수강생 129명 중 118명이 수료증을 받을 예정이다.

1부 기능분야 발표회에서는 광주시 남도의례음



식장 최영자 보유자 강좌의 조아란 수강생, 이애설 보유자 강좌의 김은수 수강생, 민경숙 보유자 강좌의 안건상 수강생이 전통음식 대표 작품을 소개한다. 또한 광주시 민화교 송광무 보유자가 진행한 민화 강좌의 김하정 수강생, 전문강사 이성민 화가가 진행한 민화 강좌의 황연숙 수강생이 대표 작품을 공유한다. 민화·민화 작품 20여 점은 오는 11일까지 전통문화관 입석당에 전시된다.

또 2부 예능분야 발표회는 광주시 무형유산 예능보유자인 이순자 판소리 강좌의 수강생 공연을 시작으로 양신수 판소리교본, 박미정 초급 판소리, 방성춘 판소리, 최연자 판소리, 김선이 판소리, 이영애 청소년 가야금 병창, 황승욱 청소년 가야금 병창, 문명자 청소년 가야금병창 순으로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무대에서 선보인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남도 전통회화 대가’ 김형수 화백 별세

1940년대부터 70년 화연, 화단서 최고령 어른 중 한분

대표작 ‘자화상’·‘강강수월래’ 등 다수 남겨···발인 6일



광주 화단에서 두달 위인 김영태 화백에 이어 두번째 최고령 화가이자 남도 전통회화의 대가로 통했던 김형수 화백(광주)이 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7세.

석성 김형수 화백은 1943년 심산 노수현(心汕盧壽顯)의 문하에서 심산의 명확한 골격을 이루고 있는 화법(畵法)을 바탕으로 해 독자적인 품격과 양식을 갖추기 시작, 한때 남농 허건(南農許健)과 동강 정운면(東岡鄭雲勉)을 사사(師事)했다. 하지만 석성은 심산을 사사한 뒤 기본적인 기량이 탄탄하게 발전해 개성적인 화풍을 선보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외재 허백련이나 남농 허건 문하를

통해 화단에 나온 수목화가들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등 자신만의 독보적 화풍을 구축했다.

특히 대부분 수려한 심산유곡(深山幽谷)이나 강변, 산야의 풍경을 기본 소재로 해온 석성은 대자연의 풍광을 웅장하면서 섬세하게 표현하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여가다 마을의 존재나 삶의 표정을 적절히 결여해 다양한 현실적인 구도를 취하며, 담채로 계절적인 분위기와 정취를 부각시키는 산수와 형식은 힘 있고 명확한 골격을 이루는 특징적 표현으로 성립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이런 그의 기본적인 필력은 사실적인 소묘 훈련 바탕 위에서 성립된 것으로 인물 주제, 이를



보리밭 (1953)

테면 즐겨 소재로 삼은 농악놀이의 흥겨운 정경 표현의 빠르고 생동적인 필선 형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석성은 견고한 전통 산수의 화법 위에 이상향을 관념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창조적 심의(心意)로 탄탄한 실경산수를 그려왔으며, 무엇보다도 그만의 탁월한 대생력은 뛰어난 묘사력이 돋보인 실경산수를 가능하게 했다는 풀이다.

그의 산수는 기존 화법에 따라 ‘기운생동’(氣韻生動)과 골법용필(骨法用筆)을 근간으로 하는 수

묵화 전래의 패턴을 지키고 있으나, 오늘날의 관객과 시각에서 수용할 수 있는 농촌의 정취를 함께 담고 있다. 안개가 흐르고 있는 심산유곡(深山幽谷)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념 속의 산수경(山水景)이 아닌, 인근한 우리 주변의 풍경이라는 이야기다.

석성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두달간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지역 최고령 김영태 화백과 함께 한 국향대전 기념 2인전이 생애 마지막 전시가 됐다.

1940년대부터 미술활동을 본격화한 석성 김형수 화백은 1929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목포 문태중과 광주서중을 거쳤으며, 1968년 광주아카데미 다방에서 첫 개인전을 연 뒤 꾸준하게 작품활동을 펼쳤고, 2009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제12회 개인전 ‘광주시립미술관 올해의 작가’ 석성 김형수 전’이 최근 가장 크게 진행된 개인전이었다.

빈소는 광주 천지장례식장 30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6일 오전 8시 30분이며 장지는 광산구 선영.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